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월 19일 (제103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설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
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나는 늘 상상한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님께
는 효를, 형제간에는 우애를 나누는 모습
을.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다.

25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 객지에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오
순도순 떡국을 먹으며 그간의 회포를 푸는
아름다운 명절이다. 이때 이런 장면이 연
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설날이면 으레 제사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
가 있다면, 더욱이 어르신이 믿지 않는 경
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나도 이 과정
을 겪어서 너무 잘 안다. 제사상이 날아가
고, 목청이 담을 넘고, 핏박이 오고...

대개 거미줄이 생기면 거미줄만 제거하려
고 한다. 그러나 거미를 잡아야 원천봉쇄
되듯,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가족들이 예수 믿
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모두 예수를
믿으면 제사가 문제 되겠는가. 설날 아침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

전도는 내 반경 안에 있는 사람부터다. 성
경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내 가족이
먼저다. 그러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가
장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
나셨지 않은가. 그러나 방법이 없을쏜가.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 된다. “예수 믿으니
뭔가 다르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그
러므로 이번 설에 가족에게 본이 되게 행
동하기를 바란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진선미를
나타냄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설날,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즐겁게 보내
세요!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편안하기 위
합이 아니다. 육신적인 안일함과 안락함
을 구한다면 난센스다. 그것은 신앙생활
에 있어 독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유
가 무엇이었는가?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시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불을 안 가리
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자들이 점차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에 물들다보니 불
같은 첫사랑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리
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며 사람
의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닌다.

성경에 역대하 14~16장에 등장하는 아

크게 노하여 그를 투옥시키고 백성들을
학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제위 39년에
병들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
게 병 낫기를 구하다가 죽음에 이른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
친 전형적인 예이다. 오랜 안일과 안락함
이 그를 타락시킨 것이다.

나태와 안일함은 신앙을 변질시킨다. 신
앙의 독이다. 편안과 평안은 전혀 다르
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있으나 하나님을 믿
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 평화다. 다
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

태풍 속에서 집회를 진행해야 했지만, 하
나님께서 단 한 번도 좌절을 맛보게 하
신 적이 없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
가는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 한량없는 은
혜를 쏟아 부어주셨다. 그러기에 목사님
은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계신 것이다. 이처
럼 35년 목회 동안 변함없이 예수 그리
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외길을 걸어가시
는 목사님이기에,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악한 마



쏟아지는 비를 멈추며 천국복음을 선포한 멕시코 팔렌케집회 광경

사왕의 이야기가 아주 극명한 예가 될 것
이다. 아사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
던지 제위에 오르자 유다왕국의 모든 우
상을 타파하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
는 어머니를 그 태후의 위에서 폐하기까
지 서슴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었다. 그뿐이라! 구스의 백만 대군이 쳐
들어왔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하여 백만 대군을 궤멸시키는 승전보를
نال았다. 그러던 아사왕도 20여 년의 태
평성대를 지나며 안일함에 젖었던지 제
위 36년째에 이스라엘왕 바아사가 쳐들
어오자 구스 백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께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했던 그가 두려
워 떨며 아람왕에게 금을 보내어 원군
을 요청한다. 그뿐이 아니다. 그의 신앙
의 변질을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님에게

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이 주
시는 평안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편
안한 신앙생활이란 없다.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신다.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다. 올림픽공원 시절,
목사님은 가든 처치(Garden Church)의
황홀함에 취하는 시간보다는 예배처소
의 불안정함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다. 체육관을 예배처소
로 사용하며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물위
를 걷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
이켜보면 비록 예배처소가 없어 한 겨울
에 트럭 위에서 설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해외집회에 나가 살인적인 무더위와 싸
우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몰아치는

귀에게 속아 스스로 합리화하며 다시 종
의 멍에를 지려는 신앙의 변질에 성령으
로 탄식하시는 것이다. 답이 뻔히 보이는
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모
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진리는 극히
단순하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이라
고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던가. 문제
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부디 내 아버지
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
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굳
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
안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하고 축복한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4:19~20)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없음이라”(갈 4:19~20).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잉태하여 낳는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4:15).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밖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선교의 교두보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이미 겪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격하고 심했는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고전4:11~13)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공하기 원하면 편안함을 포기하라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출산하는 고통은 대단한 거지요. 옛 어른들은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땀돌 위의 신발을 다시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도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나와 보라.” 낳고 나면 더 큰 수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자식을 길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 구실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적 자식을 낳는 일도 동일합니다. 안 믿는 자를 교회에 한 번 데리고 가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바로 성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젓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미운 일곱도 지나야 합니다. 사춘기도 겪어야 하고... 간 쓸개 다 빼놓고 사랑과 진리로 훈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문제아나 패륜아 아들들

은 그들 이 타고난 심성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낳기만 했지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식도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포기한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칠산리에서부터 저를 따라온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니 꿈속에 찾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해산의 수고로 낳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게 한 말 되라고 되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행여 잘못된 길로 갈까 봐, 행여 다치고 아플까 봐, 행여 넘어질까 봐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다보니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고,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그러트릴까 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

셨다고 그 후로 우리에게서 손을 놓으셨습니까? ‘이제 알아서 커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여러분,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갈 3:3).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계속’, ‘항상’ 기도하고, 선을 좇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 수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중 하나가 다이어트일 겁니다. ‘올해는 살 좀 빼보리라, 올해는 배에 왕(王)자를 만들어보리라’ 작성합니다. 그래서 굶고 운동하고 심지어 약을 먹으면서 살을 뺍니다. 지방을 빼는 해산의 고통이지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목표한 체중까지 뺐다고 거기서 멈추면 바로 요요가 와서 이전보다 더 찹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빼고 나서부터가 더욱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제2의 해산의 수고가 수반되어야 완성단계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안수로 병이 나은 자들 중에 다시 병이 들어 찾아오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병 낫기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 병이 나옵니다. 문제는 낫고 나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센 일곱 귀신이 들어와 전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마12:45). 가정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 것도, 기업다운 기업을 만든 것도, 국가다운 국가를 만드는 것도 해산의 수고로 비유될 만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혹은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일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가 이륙 후에는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지요. 대학에 수석 입학한 자들이 수석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나서는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만 낳아놓고 안 기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3).

눈물로 씨를 뿌려야 실한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들의 몫입니다. 또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이 성공의 주인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출산하는 고통도 이겨내야 하고, 낳은 후 기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수고하면 지금은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도에 매진합시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자’라는 감동적인 뜻을 세워주셨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전,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에 찬양, 말씀, 비디오 테이프와 신앙 서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일대일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택한 기사님을 만나게 해주

세요.’ 기도하며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내리고, 또 택시를 타고 복음 전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와서 반상회에서, 경비하시는 분들께,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께, 도우미분들께, 뒷동네 분들까지 배품고 섬기며 집으로 초대하여 예배도 드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교회 나가는 분들도 생겼지만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했습니다.

그즈음 총회장 목사님의 1988년 11월 4일 부산사직체육관 예수전도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날 선 성령의 감인 말씀선포와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시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예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면 많은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김보석 목사님과 함께

1989년 3월 대구체육관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후 25년이 넘는 시간에 전도집회가 이어졌으며, 그 세월 속에 대구교회와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목사님께 은혜받은 종들과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집회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구교회 대성전 정면에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매달 전도주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자’는 대형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사명과 존재이유는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사도행전 1:8).

1992년 6월 7일 메인 스타디움집회에서 ‘소경이 벼랑으로 걸어가는데 보고만 있는 자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전도는 최고의 가족 사랑, 이웃사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

니다. 전도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이기에 올해는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총회장 목사님의 삶처럼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고후12:15). 2020년도 대구교회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심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도님들과 힘을 합하여 전도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 주심을 믿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구예수중심교회 한송이 목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12월 초, 갑자기 차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 2박의 간단한 여행을 휴가 겸해서 동경에서 차로 7시간 정도 걸리는 가나자와(金沢)로 다녀왔다.

도중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한 청년이 가나자와(金沢)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애타는 얼굴로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차들을 보고 서있었다. 추운 데다 같은 방향이라 신경이 쓰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잠깐 주님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청년 앞에 차를 세우고,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신분증인 학생증과 운전면허

증을 확인한 후 차에 태웠다. 그는 명문대 졸업예정자로서 대기업에 합격은 했는데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동경에서 500km가 넘는 먼 길을 대화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가나자와(金沢)까지 히치하이킹 여행 중이었다.

그에게 “학생은 예수님을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다고 했다. 도착까지 넉넉히 3시간은 걸리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고 병 고침 받은 간증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주님을 전했다. 청년은 이런 이야기는 듣기도 처음이라고 했다. 앞으로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칠 때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내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불러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겠다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라며, 이렇게 먼

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더라며 몇 번이고 머리를 숙여 감사를 하길래 감사는 예수님께 하라고 알려주었다. 가나자와(金沢)역에 도착 후 손을 흔들며 멀어져가는 청년을 보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했다.

이곳 바닷가에 와지마온천(輪島温泉)이 있는데, 여기는 예로부터 기묘한 가면을 쓰고 큰북을 두드리는데 보통에서 점점 빨리 두드리고 치는 무형문화재 축제가 있다. 그 유래가 너무나 영적이어서 북소리로 스토리가 이해될 정도다. 적이 쳐들어오자 마땅한 무기도 없는 마을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힘을 합쳐 싸우지만 어렵도 없자 그 마을 장로의 지시에 따라 나무껍질로 무섭고 기묘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해초를 머리에 얹고 선두에 서서 처절하면서도 우렁차게 힘껏 북을 치며 배를 몰아 적을 물리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면을 쓰고 북을 치

며 축제를 하고 있다. 선두에 서서 싸우는 분들과 비록 선두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결된 마을 사람들이 가면과 북이라는 소품을 사용해서라도 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그 지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다. 선두에 서계시는 총회장 목사님과 뒤에서 기도와 물심양면 모든 것을 협력하고 협력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시골구석 휴게소에서도 존재의 이유는 확실했고,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간 바닷가 온천의 북 축제를 통해서도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존재의 이유와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한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적은 무리 속의 기쁨



일본 지바교회에 파송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지난 12월 20일 여권을 발급 받자마자 21일 비행기를 탔다. 이리 급히 보내실 줄은 몰랐다. 항암치료 후유증 등 핑계로

얼마간은 쉬고 싶었는데.

지바에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예상보다는 좋았다. 90인치 모니터를 눈앞에 두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체육관에서 듣는 말씀보다 훨씬 더 힘 있고 감동적이었다. ‘아. 이래서 전 세계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해가 되었다. 이곳은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리나 마치 수백 명이 드리는 것과 같이 은혜스럽다. 이곳 성도들의 예배 집중도가 대단하다.

목사님은 한 사람을 놓고 하든지 10만 명 앞에서든지 똑같이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나야 범접지 못할 경지. 그래서 적은 무리가 예배드려도 목사님의 사자후와 함께하니 수천 명 모여 예배드리는 것 못지

않다. 몽골 출신 여성도는 찬양과 방언이 그치지 않고 영안이 열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깊은 우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좋다. 크리스마스 성극으로 유관순 일대기를 보다가 일본 성도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근사하게 점심을 대접하고 몇 마디 배운 일본어로 ‘나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며 진심으로 소통하자 다음 예배 때 모두 참석하니 보기 좋고 고마웠다.

한국에서는 몰랐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리도 소중하고 강한 임팩트가 있는지. 외국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더니. 내가 더욱더 깊은 예수중심 교인이 된 것 같다. 그때,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다시 하면

되지. 그래도 ‘소신에게는 적과 싸울 때 12척이 남아있다’고 담대하게 아뢰는 이순신 장군의 기개를 닮고 싶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강건하셔서 이곳 지바교회가 차고 넘칠 때까지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목사님이 목자시니까요. 저는 목동입니다. 목사님을 등에 업고 가는 이 길이니 두려움도, 책임질 일도 없어 자유롭습니다. 그저 순종함이 자유스러움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꼭 오래 사세요. 예수중심 교인들이여. 지척에서 목사님을 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느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라니까.”

지바예수중심교회 이광주 목사

응답의 도구

교회 신문에서 간증을 읽거나 아는 사람이 겪은 것, 혹은 모르는 사람의 간증을 건너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뜨거워진 가슴 한구석에는 부러움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간증의 종류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예를 들면, 쌀이 떨어져서 당장 오늘 저녁 가족들 먹일 밥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에 밖으로 나가보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 바깥에 나가보니 대문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다는 간증. 밀린 기도처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열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있었고, 그가 말하길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드리라고 했으며 건넌 봉투에는 천 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밀린 월세만큼 들어있었다는 간증. 교회 건축의 잔금 날, 한참 부족한 재정 상태임에도 돈 많은 성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잔금을 치르러 가는 길에 뒤에서 누가 불러 뒤돌아보니, 어떤 성도 한 분이 급히 감사할 일이 생겨서 현금을 드린다고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딱 잔금의 부족한 금액이었다는 간증. 가장 필요한 것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정확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매번 들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마음도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떨어지고 나면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잔금 전날까지 애통하다가도 잔금 당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절박함의 수위가 발끝에서 무릎, 어깨를 넘어 머리까지 잠겨오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면 탄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이루어지죠. 어린 시절, 물질로 어려웠던 적이 많았던지라 이와 같은 간증을 들을 때면 놀랍고 부럽고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분들만 복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절박한 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한 이름 모를 누군가도 정말 복 받은 분들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힘겨운 가정에 쌀 한 포대를 몰래 놓고 간 누군가.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전

혀 모르는 기도처에 문을 두드려 선뜻 귀한 물질을 건넌 누군가.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닌 오늘 딱 그 순간에 감사헌금을 드린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길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위대한지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에게 주님의 응답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가는 손길,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건네는 손길, 물질이 갈급한 곳에 보탬이 되는 손길이 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2020년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녀를 넘어, 하나님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부르심의 소망 ::

중보기도자

하루의 십일조를 기도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매일 세 시간씩 기도하기를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지?” 그 순간 저는 어깨를 한껏 세우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얼굴은 ‘저 잘하고 있지요? 어서 칭찬해주세요.’라는 표정으로 상기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그럼 한 시간 더 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세 시간도 너무 힘든데 네 시간이라니... 제가 잘못들은 거라 생각하고 얼버무리려 하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네 시간씩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중보기도자로 불렀다.’고 하시며 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겁고 막중한 임무라 부담도 되었지만,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며(고전2:10~11), 그렇게 저는 중

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제 특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쳐있을 당사자에게 보호막을 씌워주고 그 앞에 서서 제가 대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평상시 하나님께 잘했던 일을 제가 대신 아뢰므로 하나님께로 기억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관찰력과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일들을 보거나 듣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당사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보내온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설을 3주 앞둔 월요일, 신문에 글 쓸 차례가 되었다는 국장님의 연락이 저에게는, 이번 설에도 우상과 처절한 싸움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결코 가볍지 않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처음 저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

리며 이 글을 씁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보복을 경고한 사자를 만난 후 혼자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자 칠천 인을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18:20~19:18). 저는 이들이 엘리야를 위한 중보기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도 엘리야처럼 홀로 우상과 싸울 성도님들을 위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칠천 인의 중보기도자들을 예비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중에 한 명인 저는 3주 동안 제 몫을 다해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제 기도가 튼튼한 갑옷이 되어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호해주시기를, 제 기도가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왕하6:17)가 되어 성도님들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지금 치르고 있는 희생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롬8:18). 저는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아뢰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박영신

2020 트렌드 분석

2020년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서적들이 서점에 즐비하다. 그중 종합 리서치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출간한 ‘2020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의 한 챕터가 꽤 흥미로웠다. ‘2020년, 외로움에 주목하라! 외로움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라는 신선한 주제를 접하며 ‘외로움’이라는 트렌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에서는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개인의 감정인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영국인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악플에 시달리다 ‘나는 혼자야!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라는 극심한 외로움에 결국 죽음을 선택하곤 했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요즘 젊은 Z세대들도 그 이면에는 SNS, 인터넷으로 소통하며 ‘좋아요’에 집착하고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 낳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 성별, 계층,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태초부터 아담은 하와와 함께였고, 예수님도 열두 제자와 70인의 제자와 함께 연합하셨다. 사도 바울도 실라와 바나바라는 동역자들과 함께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항상 따뜻하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는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철저히 귀신이 주는 것이니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귀신아! 가라! 가라!’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